



인주마을 이야기

인주마을 이야기 since 2012 제154호

2025년 6월호

완주에서 다시, 삶을 짓다

고산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내 공동텃밭이 하루가 다르게 온갖 작물로 채워지고 있다. 올해 서울, 경기도, 경남, 세종, 전주 등 경향 각지에서 온 10가구의 초보농사꾼들이 완주에서 새로운 삶을 짓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덕분이다. 이들에게는 초여름 피약벌 속에서도 날마다 실험과 같은 일상이 신기하기만 하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내 고장 완주일기에 나선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주자들이 경천면 원용북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완주에서 살아보기 도전한 3인방 ... 8P ● 고산 삼우초 학자지킴 단오 풍경 ... 10P
- 삶의 풍경 어우리 전경에 이야기 ... 14P ● 섬유예술가 백남경 작가 ... 16P



완주의 이웃과 땅과 자연을 향해 따로 또 같이 스며드는 시간



‘완주알기교육’ 4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새벽이 맑은 마을 낮에는 햇살이 들고 밤엔 별이 가까운 곳. 완주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귀농인의 집) 9기 교육생 14명이 이곳에서 두 번째 삶을 그려가고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 내려와 농촌이라는 낯설고도 단단한 땅 위에 자신만의 속도로 뿌리내리는 중이다.

어떤 이는 오래 품었던 농사에 첫발을 내디뎠고 어떤 이는 “이 삶이 나랑 맞을지 시험해 보러 왔다”고 말한다.

완주살이를 통해 다시 ‘살아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산치 같은 아침, 웃음 가득한 텃밭의 오후

초여름 해가 저물어가는 5월 26일 오후 4시, 공동텃밭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은 ‘완주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들까지 함께해 텃밭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다. 이랑과 고랑을 다듬는 손길마다 활기가 넘쳤으며 그 속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늙은 사람 일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이건 힘든 일도 아니에요!” 권봉엽 씨와 김동건 씨가 주고받는 농담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린다. 말은 그렇게 해도 봉엽 씨는 어느새 호스를 손에 쥐고 꼼꼼히 작업에 임했다. 동건 씨 또한 갈퀴를 챙겨 들고 고랑을 손보았다.

세대별 텃밭을 돌보는 사람들 너머로 산나물 팀의 공동경작이 이루어졌다. 네댓 명이 서로 분업해 산나물 모종을 심고, 땅을 고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여기 조금만 더 퍼줘요!” “알았어요, 거기 맞추면 되죠?” 웃음 섞인 대화와 손발 척척 맞는 호흡이, 이들이 이제 막 만난 지 4개월도 안 된 사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이렇게 금세 정이 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져서 슬쩍 최수안 씨에게 물었다.

“아침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처음엔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포틀럭 파티예요. 각자 뭐라도 하나씩 들고 오거든요.”

그 시작은 ‘큰형님’ 같은 존재인 봉엽 씨가 커피를 내려주던 자그마한 다방이었다. 아침이면 철우 씨가 빵을 가져오고, 수안 씨는 샐러드를 만들고 동건 씨는 계란말이를 만들어 오는 식이다. 자연스레 생긴 모임은 이제 그날그날의 작은 잔치가 되었고 아침의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하루를 온종일 덥히고 있었다.

완주를 알아가는 네 번째 걸음

‘완주알기교육’ 4차 프로그램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완주에 정착한 이들이 이웃과 땅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이다. 첫 일정은 경천면에 위치한 ‘엘리스의 텃밭’이다. 이곳은 체류형 3기 교육을 수료한 김정

한·정유진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으로, 교육생 출신이 정착해 가꾸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귀농이라는 선택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이날 교육생들은 쌈채소와 고추가 알차게 자란 밭을 둘러보며 김경한 대표로부터 작물의 생육 과정과 관리 노하우를 배웠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용북리에 자리한 ‘청정베리팜’. 김은주 대표는 폐농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아스파라거스 노지재배에 집중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넓게 펼쳐진 밭을 걸으며 아스파라거스가 자라는 모습과 재배 방식을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서민호 씨는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가는 줄은 몰랐다. 수확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재밌다”며 웃었다. 이어 “아스파라거스는 굵은 게 식감도 좋고 특히 소고기랑 같이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작물에 대한 애정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블루베리 재배 중 인건비 부담과 수확 후 관리 문제로 폐농 결정을 내린 경험을 이야기

하며 그 선택 이후의 전환도 함께 소개했다. 기존 블루베리밭 약 1,000~1,200평 규모에는 이제 땅콩이 자라고 있다. 땅콩 심는 법부터 선별작업까지 손이 많이 가는 품목이지만 오히려 운영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청정베리팜은 2016년부터 꾸준히 아스파라거스 뿐 아니라 마늘과 양파도 함께 재배해 왔다. 마늘과 양파는 시기에 맞춰 적절히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는 단순한 작업 같지만, 병해를 막기 위한 토양 관리와 수확 후 저장법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자세한 방법도 공유해주었다.

교육생 이재선 씨는 “이런 현장의 이야기는 센터의 교육이 아니었다면 쉽게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완주알기 교육 덕분에 작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은 물론 농사의 태도까지 배운 것 같아 정말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점심 식사 후 교육생들은 운주면에 위치한 ‘강순 후 커피농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농사와 체험을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조금 특별한 농장이다. 이날 교육생들은 신선한 커피 수확 체험과 버섯재배장을 둘러본 뒤 강순 후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농장 운영 사례 발표를 경청했다. 강 대표는 “농업은 단순한 작물 재배를 넘어 삶을 디자인하는 일”이라며 농장의 전환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교육의 마지막 일정은 완주 제1경인 대둔산 도립공원 탐방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 구름다리를 건너는 순간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완주의 매력을 선사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의 자연자원과 풍경을 몸소 체험하는 의미 있는 마무리였다. 교육생 김민근 씨는 “농촌 현장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연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완주를 알아가는 길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4차 완주알기교육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완주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깊이 풍성한 깨달음을 전해주었다. 땅을 일구는 손길과 실패를 마주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는 공간들까지.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9기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윤종범 멘토



고산권버두레모임에 참여한 봄날(왼쪽), 최수안(오른쪽) 씨가 6월 8일 공동 못자리에서 모내기 준비를 위해 모판을 나르고 있다.

되길 바란다.

비닐하우스 작업 현장

아침부터 초여름 햇빛이 유독 따사로운 5월 30일, 이날은 공동텃밭 한쪽에 세운 비닐하우스 문을 만들기로 했다. 2015년에 귀촌한 윤종범 씨가 멘토로서 2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서울에 아직 사업체가 있어서 이곳과 왔다 갔다 하며 지낸다. 오늘 교육을 위해 어제 서울에서 막 내려왔다”고 웃었다.

선배가 능숙한 손길로 자재의 길이를 재고, 자르는 시범을 보이면 교육생들이 집중해서 과정을 관찰했다. 눈으로 배운 다음에는 몸으로 직접 익힐 차례다. 각파이프의 길이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나사가 들뜨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업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진다. 그렇게 김동건, 주철우, 김민근 씨가 번갈아 가며 실습하는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조금 떨어진 105호 텃밭을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204호에 사는 최수안 씨다. 비닐하우스 문을 만드느라 바쁜 동건 씨를 대신해서 그의 텃밭을 정리하고 있던 것이다.

“쌀 가져다 먹는 친정 오빠 같은 사람이라 대신 해준다”고 웃은 그는 “배추벌레가 열무를 많이 갉아 먹어서 그나마 쓸만한 것은 두었다가 샐러드로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다 갈아엎어서 다음 작물을 재배할 때 양분으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한 개를 다 만들고 잠시 담소를 나누며 쉬던 교육생들은 “이제 2개 만들었으니까, 밥 먹기 전까지 2개 더 후딱 만들어봅시다!”라고 외치는 동건 씨의 말에 다시 몸을 일으켰다. 교육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 덕분에 다들 웃으며 작업을 재개했다. 몇 번 힘을 맞춰봤더니 이제 척척 분업이 잘된다. 철우 씨가 문 안쪽 코너를 둥글게 다듬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점심 전에 작업을 모두 끝낼 수 있으리라. ☺



위부터_ 단체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한두 명씩 모인 산나물 팀. 농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완주알기교육 활동 모습. 비닐하우스 문을 만드는 참여자들.

203호

김민근 씨

“못다 한 아내의 꿈 농촌살이 이뤄주려 완주로”



위_ 민근 씨가 정리해둔 텃밭과 씨앗이 영글어가는 대파.
아래_ 계단에 걸터앉아 웃고 있는 김민근 씨.

5월 26일 오후 5시 삼주를 심기 위해 입교생들이 하나둘 텃밭에 모여들었다. 그중 조용히 삼을 든 채 흙을 고르고 있던 한 남성이 눈에 띄었다. 경기도 화성에서 20년 가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해 온 김민근(55) 씨다. 키보드 대신 삼을 든 지도 벌써 석 달째. 사별한 아내의 꿈이었던 ‘농촌살이’를 이어가고자 완주로 내려왔다.

아내의 꿈을 따라, 낯선 땅 완주로

민근 씨가 귀농귀촌 체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따로 없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처음에는 김제 지역을 소개받았다. 그러던 중 완주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완주로 향했다.

“작년 10월 말쯤 완주에 내려와 두 시간 정도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바로 결심했어요.” 그가 완주로 내려온 이유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민근 씨는 최근에 아내와 사별했다. “아내가 은퇴 후 3~4년 뒤쯤 농촌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함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라던 삶을 제가 대신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완주로 내려오게 됐지만 사실 완주라는 지역은 그 전까지 전혀 몰랐던 곳이었다. “완주는 알고 있었지만 완주는 처음이었어요. 완주에 상담 받으러 처음 왔을 때 풍경이 정말 좋았고 상담 내내 친절하게 도와주신 사무장님 덕분에 느낌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과거에도 소소하게 주말농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아내가 주도했던 일이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농사를 배웠다. “화성 근처 절대농지에서 2년 정도 주말농장을 했어요. 노지에서 1년 비닐하우스에서 1년 정도였죠. 그때는 아내가 하자고 해서 따라갔던 거였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멈추고 농촌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신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일을 오래 하면서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삶이 너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그런 시기에 아내와의 기억 그리고 농촌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 겹쳤죠.” 그렇게 그는 완전히 다른 삶에 자신을 던지듯 완주에 들어섰다.

문화와 농촌이 어우러진 가능성의 땅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그는 ‘완주알기 프로그램’을 꼽았다.

“완주 13개 읍면 중 절반가량을 돌아봤는데 이미 정착한 분들도 많고 문화시설과 관광 테마파크가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삼례문화예술촌에서 프라모델 전시 제안을 받으며 젊은 층과 문화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완주의 잠재력을 몸소 느꼈다.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업, 상업,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완주는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임을 깨달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함께하는 동기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한 곳에서 정착이 어려워도 2~3가구씩 같은 방향으로 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삶의 터전을 꾸리며 완주에서 미래를 그려간다.



“유통맨에서 산나물 농부로 도전 시작”

202호

박진홍 씨

전주 인후동에서 유통 도소매업을 하다 완주 귀농귀촌 체류형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진홍(58) 씨는 3년 동안 온·오프라인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귀농 준비를 해왔다. 유통업에 몸담으며 카페와 식당에 음식을 납품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성과 특색이 농촌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임을 체감한 그는 완주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 중이다.

진홍 씨는 “전주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정서적으로도 잘 맞는 곳이라 완주를 선택했다”며 “완주와일드푸드축제에서 캔아트를 접하며 이 지역과 인연을 쌓은 것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후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탐방을 경험하며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특히 산나물과 자연친화적 농법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컸다. 처음에는 유자 재배와 치유 체험카페를 구상했지만 프로그램 내 공생농법 교육을 통해 산나물의 가치와 효능을 배우면서 방향을 바꾸게 됐다. 진홍 씨는 “산나물 축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산쪽 임야에서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체 생활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주로 50대 이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고산아재’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내고 있다”며 “함께 산나물 축제를 찾아다니고 가을에는 직접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도 세우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정착을 준비하는 진홍 씨는 주로 고산, 경천, 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매물이 적고 시골 특성상 매물이 입소문으로만 알려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짧게라도 체류형 프로그램이나 3개월 살아가기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온라인 교육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고 체험해야 진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박진홍 씨.

“아이들의 행복과 공동체적 삶을 찾아”

부부의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시작된다. 분주한 아침 삼우초등학교 2학년 첫째, 고산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를 보내고 나면 봄날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공생농법 교육, 자연농학교, 그리고 고산권 버드레 활동 등. 남편인 까공은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내려와 양육을 주로 담당하며 녹색평론 모임, 삼우초 책임어주기 등을 한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지내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어떻게 정착할지 고민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텃밭에서 안부를 묻는 일상이 즐거워요. 예전에는 개별적인 삶이었다면 지금은 사람 간 마주침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부부는 텃밭에서 ‘섞어짓기’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한 가지 작물만 심지 않고 땅콩, 가지, 토마토 사이사이에 꽃이나 허브를 심어 상생농법이다. 손이 많이 가지만 다양성도 있고 친환경적이라 만족스럽다. 텃밭에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 중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호박과 옥수수를 기르고, 최근에는 수박도 심었다.

부부가 완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교육이었다. 대전에서 공동육아 친구랑 어린이집에서 육아 공동체 활동을 했던 봄날은 공동체적 삶에 매력을 느꼈고, 마침 고산고등학교로 부임한 지인의 초

대를 받아 고산향 교육공동체를 알게 됐다. 이후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고산의 매력에 빠져 완주에 발을 디뎠다.

“대전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율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공교육 학교에 들어가니 그런 경험이 단절되는 게 아쉬웠어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꺾여나가는 듯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죠.”

완주로 온 후 아이들 생활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만족한다고 말한다. 일반 공교육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봄날은 공생농법 교육을 통해 농업을 기초부터 배워나가는 동시에, 대전에서의 수제청 가공업 경험을 살려 현재는 동료 최수안 씨와 함께 템페인도네시아의 전통 콩 발효식품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도 참여해 제품 브랜드와 시제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얼마 전에는 제주 템페 연구소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부부는 완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주거 정보 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귀촌 분야를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이 개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101호

봄날·까공 부부



봄날 씨와 아이들이 텃밭을 살피고 있다.

“농촌사회에 공헌할 길 모색 중”

Q. 자기소개와 체류형 프로그램 참가 계기

20년 가까이 역사,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회운동가다. 김제가 고향.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고, 그중 지인의 추천을 받아 완주로 오게 되었다.

Q. 완주만의 장점 또는 매력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인접한 대도시가 있는 게 장점이다. 2011년도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사회적경제를 공부했을 때 우수사례 지역으로서 완주를 처음 알게 되었다. 실제로 살아 보니 공동체의 긍정적인 힘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또 대도시와 가까우니 완주에서 해소할 수 없는 불편함을 언제든지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다.

Q. 완주 살이 4개월 차의 감상

서울의 복잡함을 피해 내려왔지만 결국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중이다. 저녁마다 그룹별로 모여 식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을 체화하고 있다. 목표가 뚜렷한 동기들

과 영농조합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내 힘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Q. 지역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모두의 놀이터’에서 매주 어린이 대상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다. 놀이기구를 운영해서 아이들과 노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만나는 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인상적이다.

Q. 완주군과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교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완주군 내 농업기술지원센터나 잡센터 등 다양한 조직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정수업으로 편성하고, 교육생들이 학습에 집중하면서도 농가나 일자리 협약을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면 정착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104호

이재선 씨



아버지의 황토를 가져와 고구마를 심은 재선 씨.

201호

박용운·정윤진 부부

“기운 좋은 완주에 스마트팜 꿈꿔요”



텃밭 앞에서 나란히 앉은 박용운·정윤진 부부.

도시생활을 하던 30대 청년 박용운(38) 씨와 그의 아내 정윤진 씨는 도시 생활을 잠시 멈추고 완주군 귀농귀촌 체류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다양한 일을 경험했던 그는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고민 끝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부의 삶을 꿈꾸게 됐다.

Q. 체류형 프로그램 참가 계기

청년농업을 목표로 교육 시간을 채우고 싶었고 여러 차례 귀농귀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완주가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생의 침체기를 겪던 중 고산미소에서 소고기를 먹고 기운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완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Q. 처음 도전하는 농사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농사에 처음 도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순수하게 배우고자 시작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스마트팜 운영이며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열대

작물도 도전하고 싶고 고추 농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배우고 있어요. 특히 국산 고춧가루는 수요가 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돼서 힘들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종자은행과 농촌진흥청에서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경험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Q. 완주 정착을 고려 중인지?

네, 완주 정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로 시작하려고 해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거주지인데 월세로 시작할 수 있는 집이나 빈집 관련 정보가 더 다양하게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고추, 쌈채소, 오크라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으며 농사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하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은 교육기간 동안 정착에 필요한 땅이나 집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고 귀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물 좋고 사람 좋은 고산에서 보내는 매일이 행복”

105호

김동건 씨

완주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뒤편에서 비닐하우스 문을 만들고 있던 김동건(56) 씨를 만났다. 서울에서 25년간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했던 그는 최근 5년간 몸이 아파 거의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건강이 악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으로의 이주를 꿈꾸게 되었고, 올해 완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실 귀촌하고 싶은 마음은 꽤 오래됐어요. IMF 때부터 내려오고 싶었거든요(웃음).”

동건 씨는 아프고 나서 본격적으로 농촌행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여러 지역의 1년살이 프로그램 찾아보던 중 완주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했다. “완전히 농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귀농과 귀촌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원했어요.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찾아오기 편해야 했는데, 교통편이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완주가 가장 적당했죠.”

동건 씨는 게스트하우스 공유주방에서 동기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특히 ‘바리스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솜씨가 뛰어난 권봉업 씨가 내려주는 연한 드립커피의 맛이 일품이다. 동건 씨는 “아무래도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끼니마다 밥해 먹기 어렵기도 하고, 식재료를 함께 나눠 먹으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했다.

사실 그가 완주로 가겠다고 했던 당시 아내는 ‘과연 이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버틸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해서 동건 씨의 방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즐거워하는 그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늘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방에 들어놓기 위해 당근마켓에서 대형 양문형 냉장고를 구해준 것도 아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김용연 선생님의 친환경 공생농법 교육”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농사보다는 자신과 가



족,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정성껏 기른 먹거리를 나눠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 것이다. 완주 생활 4개월 차, 동건 씨는 “매일매일이 좋다”고 말한다.

“2년 정도는 이곳 생활을 즐기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특히 먼저 귀촌한 분들과 인연을 맺어 네트워킹이 생기니까 그저 좋습니다.”

그가 1순위로 정착을 희망하는 지역은 물맛에 반했다는 고산이다.

“직접 키운 농작물로 식당·카페 운영을 꿈꾸며”

최수안(46)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텃밭을 가리키며 “제가 심은 건 다 죽어가고 있다”고 털털하게 말했다. 땅콩, 토마토, 양상추, 가지, 옥수수까지 옥심껏 심었지만, 4월 말 늦은 파종에 초보 솜씨까지 더해져 영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동기들과 땅따먹기하듯 제일 넓게 심어놨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라며 웃는 모습에서 명랑한 성격이 엿보였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수안 씨는 시골 전원주택에서 체험을 곁들인 카페와 식당을 열고 싶다고 했다. “예전 식당에서도 로컬푸드를 즐겨 사용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제 손으로 기른 채소와 농산물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농사부터 배워야겠더라고요.”

처음엔 순창 쪽을 염두에 두고 당일 체험에 참여했고, 괜찮은 느낌이었지만 더 알아보던 중 완주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모집에는 일정상 지원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올해 1월 추가 모집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농사 경험이 전무한 수안 씨에게 완주에서의 배움은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공생농법 교육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한다.

“함께 심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작물 조합을 배우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토종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처음 제대로 알게 됐고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 그런지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실무 경험 부족을 아쉬워하는 그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전 과정을 차근차근 익혔으면 좋겠다”며 “농가 멘토링 같은 1대1 새벽형 인간인 수안 씨는 아침 일찍부터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웃들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모종 한 포기, 집에서 만든 반찬까지 나눠받으며 오히려 살이 6킬로나 쪘을 정도로 따뜻한 인심을 느끼고 있다. 덕분에 완주 정착에 대한 확신도 커지고 있다.

“로컬푸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농산물 유통 연결도 수월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농가 대표님들이 직접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밥까지 사주시니까 든든하죠.”

그는 “농사 기초를 탄탄히 다진 다음에야 체험형 카페와 식당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204호

최수안 씨



자신이 기르는 상추 텃밭을 소개하는 수안 씨.

완주라는 공통분모 위에 맺은 특별한 인연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완주에서 살아보기' 도전한 주철우, 이은실, 권봉엽 씨

저마다 다른 이유로 완주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친숙한 고향 또는 화려한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완주는 어떤 의미일까.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완주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5월 22일 원용복 경로당에서 만난 주철우, 이은실, 권봉엽 씨는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박우경 팀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인터뷰에 응했다. 한 사람의 답변에 다른 이들도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엮고, 서로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완주군귀농귀촌지원센터 박우경 팀장은 “처음에는 나이와 성별 모두 다른 참여자들을 선정하는 데 부담감이 있었지만, 세 분이 너무 잘 어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다.

팔랑귀라 불리지만

'로컬푸드'라는 목표는 명확

경남 양산에서 온 주철우(59) 씨는 스스로를 '팔랑귀'라고 소개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농가마다 하고 싶은 일이 바뀌어서 붙은 별명이다. 그는 “시설농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하고 싶어지고, 자연농법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 속에서 곡괭이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로컬푸드를 통해 여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이 꿈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모악산 근처 완주군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방문했을 때였다.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의 포장일을 도우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로컬푸드 기르고 판매하면 용돈벌이로 100만 원은 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평생 먹고는 살겠구나 싶어서 10년 정도 지난 지금 완주로 돌아온 거죠.”

원래부터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창원에서 로컬푸드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완주 선택에는 인연도 한몫했다. 양산시의 원인 후배가 완주 출신과 결혼하면서 완주의 청년 및 귀농·귀촌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로컬푸드·자연·사람이 좋아
살아보려고 왔어요
성공담, 실패담도 모두
그 자체로 값진 정보”



왼쪽부터 주철우, 이은실, 권봉엽 씨.

이번이 두 번째 귀농인 철우 씨에게 완주에서의 경험은 특별했다. 특히 공생농법교육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첫 농사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물이 많이 죽었을 때, 농사짓는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원인을 몰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니 속이 시원해요. 알고 보니 근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골짜기 땅이었더라고요. 농사의 가장 기본인 흙에 대해 잘 몰랐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는 “마침 삼례에서 집을 구하게 되어서, 프로그램은 끝났어도 완주생활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로컬푸드의 다품종 소량생산을 계획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배 농부들의 경험으로부터 용기 얻다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았던 이은실(30대) 씨는 2021년부터 귀농·귀촌을 생각했고, 올해 용기를 내어 처음 실행으로 옮겼다. 은실 씨가 완주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의 관심사인 자연농과 관련한 단체 ‘씨앗받는농부’가 활동하고 있었고, 전주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완주에 이미 귀촌한 청년을 통해 1박2일 완주를 둘러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까지 하고 나니 결심이 섰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아보고 싶어 연락했을 때 마침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약 4년간 품어온 꿈이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도시에서 계속 살다가 내려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완주에서 만난 귀농·귀촌인들의 경험담이었다.

“귀농·귀촌인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남아있어요. 각자의 경험을 듣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죠.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앞서 움직인 사람들의 경험담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진남현·신미연 농부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인데 훨씬 전에 귀농·귀촌하여 자급자족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삶이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석 달간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은실 씨는 “아쉬우면서도 아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프로그램 도중에는 여러 교육을 듣느라 정말로 이곳에 살고 있다는 느낌은 덜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예행 연습을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진짜 완주에서 살아보려고 해요.”

인생 제2막, 새 터전을 찾기 위한

무작정 도전기

세종에서 온 권봉엽(60대) 씨는 진중하면서도 유쾌한 성격으로 주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큰형님’이다.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던 그에게 완주행을 권한 것은 장수에 귀농·귀촌한 친구였다.



이은실, 권봉엽, 주철우 씨가 원용복 마을 경로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인이 그린대로를 소개해 줘서 그곳에서 많은 지자체의 모집 공고를 확인했어요. 그중 완주를 발견했는데 귀농보다는 귀촌에 초점을 맞춰서 무작정 살아보기로 하고 내려왔죠.”

스스로 역마살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봉엽 씨. 제주에 가면 제주 사람처럼, 완주에 오면 완주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이런 적응력 덕분인지 완주 생활에 흠뻑 빠져서 살고 있다고 했다.

무작정 내려와 완주에서 귀농할지 귀촌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그간 다양한 교육을 들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농지법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배운 교육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이 투자하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완주가 그런 부분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농업인들과의 만남도 소중한 경험이였다. 그는 “성공했던 실패했던 모든 경험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정보”라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 시스템과 고령자 친화적인 일자리 및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좋은 정착 여건”이라고 평했다.②



1. 원용복 마을 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참여자들과 박우경 팀장.



2. 대승한지마을에서 만든 작품을 자랑하는 이은실 씨.



3.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인사하는 참여자들.

‘완주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완주군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귀농·귀촌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완주군과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단계에서는 완주 지역 탐방과 특색작물 탐색, 2단계에서는 실습농장에서의 친환경 작물재배 교육, 3단계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농촌 정서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사업 운영 경험과 다수의 성과평가 우수상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늘 퍼진 웃음따라 풍년 들게 해주오

고산 삼우초 2025년 풍년기원 단오한마당

‘2025년 풍년기원 단오한마당’이 지난 5월 31일 삼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고산향교육공동체 주최, 삼우초등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단오를 기리며 전통을 배우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살아 있음을 느끼는 마을잔치로 기획되었다. 잊혀 가는 전통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단오한마당이 어느덧 19년째가 되었다. 지역주민과 학생 및 양육자, 고산 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함께 준비하고 만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제의 학생이 오늘의 어른이 되어 다시 참여하는 모습이다. 전통이 이어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

이었다.

삼우초 6학년들의 길긋으로 문을 연 행사는 개회사와 단오와 벼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신나는 풍물놀이 가락에 맞춰 남녀 노소가 손발을 맞춰 모내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꿀맛 같은 점심을 나눠 먹은 후에는 고산중학교와 고산고등학교 학생 밴드의 공연이 흥을 돋우었다. 오후가 되자 양육자, 졸업생,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로 놀이마당이 시작되었고, 단오한마당의 하이라이트인 ‘단오장사 씨름대회’에서는 함성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모내기는
정성껏!



뒷풀이는
마음껏!



완주문화재단 꿈의 극단 '완주'

작은 예술가들의 놀이터



'꿈의 극단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올해 전국 12개 신규거점기관이 선정되어 5년간 지원받아 2030년에는 자립거점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25년부터 5년간 아동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합니다.

글=꿈의 극단 코디네이터 이정란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꿈의 극단 완주는??

01

'꿈의 극단 완주'는 아이들이 쓴 이야기가 대본이 되고,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진 대사를 외우기보다, 연극을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며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이야기를 상상하고, 장면을 구상하고, 연출과 소품까지 함께 만들다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작은 예술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연출가 추미경, 극작가 송지희, 안무가 김빛난 등 탄탄한 창작진이 함께하고, 김희진, 노민아, 문경혜, 변아희 예술가가 주강사로 아이들의 성장을 따뜻하게 이끌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아이들의 상상과 웃음소리로 가득한 특별한 놀이터가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나를 찾아 떠나는 신나는 연극여행!

02

올해 '꿈의 극단 완주'는 '사사로운 일상생활'을 주제로,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친구들과 지낼 땐 어떤 기분이 들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연극 놀이와 즉흥극,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일상 속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을 희노애락과 애오욕 등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으로 탐색하고, 소리, 움직임, 오브제, 조명 등 비언어적인 표현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면을 채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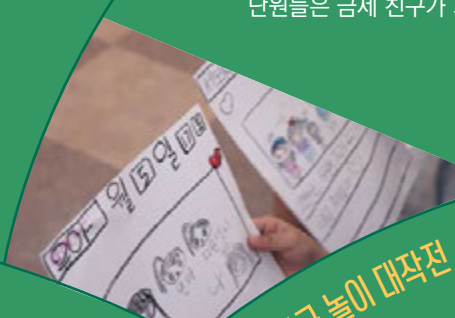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엮이고, 모든 단원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예술로 세상과 만나는 감각을 키워갑니다.

#우리들의 첫 장면 03

지난 5월 3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위에선 '꿈의 극단 완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단원들과 가족들, 예술감독과 강사진이 함께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죠. 부모와 아이가 무대 위에서 함께 걷고 뛰며 놀이하는 모습은 하나의 따뜻한 장면이었고, 단원들은 금세 친구가 되어 웃음을 나누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잊지 못할 우리들의 에피소드'



04

#상상하면 뭐든 된다! 연극 놀이 대작전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도 단원들 모두 연극 속 주인공으로 변신합니다. 뒷짐을 지고 "엠편~"하는 위엄있는 교장선생님, "야옹 야옹~"소리를 내며 등장한 귀여운 고양이,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며 기름에 튀겨지는 통닭까지. 이 시간엔 뭐든 될 수 있어요.

연극 놀이는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현실에서는 해보지 못할 역할과 장면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뛰고, 몰입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표현력까지 동시에 쑥 자라는 마법같은 시간이죠.



#무대 위에 펼쳐질 아이들의 우주

아이들의 이야기는 때로 어른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꿈의 극단 완주'는 5월, 가족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첫발을 디뎠고, 낯설지만 신나는 연극의 세계를 탐험 중입니다. 앞으로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관객을 만나며 경험을 쌓고, 11월 22일 정기공연에서 한해의 여정을 무대 위에 펼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무대를 통해 피어나고, 그 울림이 지역 곳곳에 번져가길 기대합니다.

Instagram dreamtheater_wanju_official



완주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in 완주

우리 다음, 우리다운 이야기 **꿈의 무용단 in 완주**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전국 20개 기관에 5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23년부터 참여해 2028년 완주 꿈의무용단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로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글=꿈의 무용단 코디네이터 최가람



01 # 나다음에서 우리다음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움직임과 감각을 더욱 깊이 확장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 2년 차 동안 아이들은 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다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인 올해는 ‘우리다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감정은 변화하고, 관계는 넓어지며, 그 안에서 춤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꿈의 무용단 in 완주’는 ‘우리다음 속에서 춤으로 성장하는 나’를 목표로 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춤 사이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표현은 더 솔직하고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단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고려해 처음으로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미숙 예술감독은 “움직임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감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라며, 음악을 듣고 따라 하기보다는, 보고, 만지고, 느끼고,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만의 감각으로 몸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놀이활동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완주의 설화 ‘공쥐팔쥐’를 ‘관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해, 단원 각자의 감각과 생각을 담은 무대를 오는 11월 29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02 # 모두 함께한 ‘꿈의 무용단 in 완주’의 오픈클래스

지난 5월 3일, 가정의 달과 완주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를 맞아 ‘꿈의 무용단 in 완주’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오픈클래스는 단원과 학부모님은 물론, 꿈의무용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서로의 손바닥 온기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따뜻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클래스가 열릴 예정이니, 몸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고 싶다면 ‘꿈의 무용단 in 완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픈클래스 진행 모습

03 # 나를 따라해보세요!

“자, 여러분! 파트너와 함께 한 사람은 ‘거울’, 한 사람은 ‘사람’ 역할이 되어 움직임을 따라 해볼 거예요~” 단원들은 돌씩 짝을 이루고 거울 놀이를 시작합니다. 서로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동작을 통해 몸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있는 즐거움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순간들이죠.

‘꿈의 무용단 in 완주’의 다채로운 활동소식과 8월 오픈클래스 일정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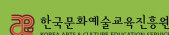
미러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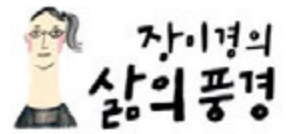
Instagram: dreamdance_wanju_official



문의_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063-262-3955)



촘촘한 돌봄의 연결망 속에 산다는 것.



고산면 어우리 전경애 이야기

: 완주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대뜸 '밥은 챙겨먹고 다니냐'는 꾸중같은 질문을 던지고 텃밭으로 총총총 사라졌다가 푸성귀를 잔뜩 들고 오는 동네 할머니의 무심한 다정함.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어디 가냐고' 묻는 동네 할아버지의 장난스러움. 특별한 용건 없이 전화해서 농담을 주고받는 친구들. 배고픈 길 위 동물 친구들의 밥을 챙기고 하루 종일 묶여 있는 마당개들과 산책하는 이들의 발걸음. 며칠째 닫혀 있는 동네 어르신 댁의 대문이나 텅 빈 빨래줄, 혹은 며칠째 널려있는 똑같은 빨래를 감지하고 문을 두드려 보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 모든 마음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무한 증식하는 것이 상호 돌봄의 시작 아닐까.

작년 한 해 동안 '돌봄선언-상호의존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곁에 두고 수없이 읽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삶을 가로질러 가족으로 한정되는 돌봄의 범주를 새로이 규정하고 돌봄의 관계를 맺는데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와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개념으로 '난잡한 돌봄'이 등장하는데 '난잡함'이라는 개념을 '가벼운' 또는 '진정성 없는'이라는 의미가 아닌 돌봄의 관계를 맺는 데 대상을 구별 또는 차별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돌보며 그 관계를 무한히 증식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이 된다면

전경애 씨(56)는 완주군 고산면의 최고참 노인 돌봄생활지원사이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노인돌봄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등장하게 되었고 경애 씨는 완주노인복지센터 소속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일상생활 지원(말벗, 식사 도움, 청소, 외출 동행 등), 안전 확인 및 정서 지원, 생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복지관, 병원 등), 위기 상황 시 응급 대처 및 보고 등이지만 정해진 일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경애 씨가 어르신을 찾아가 청소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그녀는 또 어르신들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색칠공부, 퍼즐, 한글교육 등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애 씨 트렁크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들.

“내 직장을 가지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크고 가정 내에서의 돌봄은 어느 정도 끝난 거 같아서 지역사회 돌봄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사업이 2020년에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처음 지원해서 활동한 첫 생활지원사였죠. 그때 나이도 오십이었는데 딱히 할 일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시로 일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 일을 보니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했어요. 12시 반에서 6시까지 근무하니까 오전에 내일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쓰인다는 게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전경애 씨는 2010년 익산에서 완주 고산면으로 이주했다. 아파트에서 뛰는 두 아들에게 늘 ‘뛰지마’라는 말을 달고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침 지인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는 삼우초등학교를 알게 되었고 학교 앞 시골 마을에 집을 지었다.

“아이들한테는 이곳이 고향이에요. 작은 애는 대학생되었고 큰 애는 군인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삼우초 다니면서 너무 좋아했죠. 지금도 고맙다고 그래요. 학원도 안 보내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서. 저 역시도 아무 연고도 없이 이곳에 왔는데 그 당시 삼우초 양육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낯선 곳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없었죠.”

전경애 씨 역시 이 동네의 크고 작은 돌봄의 관계망 속에서 튼튼히 뿌리내리며 살아왔기에, 지금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문을 두드리고 들여다보는 것

완주노인복지센터는 경천, 고산, 비봉, 운주, 화산 지역을 관할하며 총 36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이 잘 알아볼 있도록 눈에 띄는 빨간색 차를 몰고 다니는 경애 씨.

활동하고 있다. 경애 씨는 고산지역의 생활지원사 총 11명 중 한 명이다. 경애 씨가 돌보는 어르신은 현재 15명이다. 어르신들은 경애 씨를 ‘지원사 양반, 관리사 양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저희는 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주로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 가지 생활, 정서 지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 제가 빨리 가서 발견한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런 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더 늦게 발견되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순간 당황스럽고 떨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제 직업이잖아요. 교육받은 매뉴얼 대로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어르신이 전화도 안 받고 댁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이 쿵 하죠. 그래서 전화가 안 될 때면 밤이라도 찾아가봐야 해요. 어르신이 전화를 두고 밖에 나가셨거나,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집에 계시겠지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직접 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여다봐야 해요.

2020년에 맞춤형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매뉴얼은 요양보호시설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랑 안 맞더라고요. 5년 동안 저희가 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이 그대로 매뉴얼로 반영되고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지만, 생활지원사의 일은 그보다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밭에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으면 밭일도 함께 돕고, 꽃감 철에는 곁에 앉아 감을 꺾기도 한다. 때로는 괴팍한 어르신이나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드린다고 한다. 경애 씨는 그분들이 살아온 거친 세월을 이해한다. 가난과 전쟁을 겪으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나이 들어버린 어르신들의 곁에 조용히 앉아 끈질기게 듣다 보면, 단혀 있던 마음도 서서히 열리게 된다.

“나는 돌봄이 재미있어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순수해요. 평생 남한테 요구하며 살아오지 않아서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세요. 저는 그런 모습이 귀엽고 좋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편하게 이야기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배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당신 살아온 이야기, 경험들. 생활의 지혜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삶에서 많이 배워요.”

경애 씨는 몇 해 전에 자동차를 바꾸면서 특별히 빨간색 차를 골랐다고 한다. 어르신들이 멀리서도 자신이 오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경애 씨는 달려간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생활에서 직조한 쓰임의 예술

섬유예술가 백남경

백남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이 좋았다. 학창 시절엔 100원씩 받고 친구들의 가사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주곤 했다. 양고라 털실로 겨울옷을 만들고 코바늘로 시원한 여름옷을 떠 입혔던 모친을 닮은 것일 수도 있다. 그녀가 기억하는 모친의 바느질 솜씨는 최고였으니. “의상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과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가 다시 바늘을 손에 잡은 건 첫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였는데 손 소근육을 많이 쓰면 아이 뇌가 발달한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녀에게는 모친이 혼수로 장만해 준 부라더미싱이 있었다. 문화센터와 퀼트 샵 등의 강좌를 수강하며 태어날 아기를 위해 식탁보며 배넛저고리, 이불 등을 만들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바느질은 20여 년에 걸쳐 퀼트, 자수, 손뜨개, 패브릭 업사이클링, 천연염색, 장신구 공예, 패션디자인까지 섬유예술 전반으로 확장했다. 섬유예술가, 문화예술 교육자, 업사이클링 활동가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그녀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원래 완주사람인가

고향은 통영이에요. 남편 고향이 완주죠. 경기도 살다가 2007년에 여기로 왔어요. 집은 삼례에 있고 봉동에 작은 주택을 얻어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직업인과 예술가 사이

생활소품은 예술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라고요. 저는 모든 창작활동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의 범주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해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예술이다. 밥 먹는 것도 예술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제 활동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 한 가닥으로 창조할 수 있는 세계가 많아요.

바느질과 뜨개질의 매력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면서도 무척 실용적이죠. 또 집중하다 보면 헛헛한 마음, 우울한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크고요. 손 소근육을 쓰니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마음 맞는 이들과 모여서 함께 하면 더 즐거워 단절된 이웃 문화를 복원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있잖아요.

대학을 다시 갔다

네. 젊은 시절엔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의상학과 대신 선택한 진로였죠. 그런데 내내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패션 산업학에 들어가서 얼마 전 졸업했습니다. 하는 일에 전문성을 더하는 일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죠. 배운 게 많은 데 무엇보다 천과 바늘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진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전시회도 여나

두 번의 전시회를 열었어요. 첫 번째는 2022년에 연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였어요. 쓰임이 다한 옷을 재활용한 작품들이었죠. 두 번째는 그 이듬해였는데 직접 천연 염색한 한지 섬유로 만든 의상 및 소품 전시였습니다.

요즘 주로 하는 작업

퀼트, 자수, 뜨개질 등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골고루 다하지만 아무래도 옷을 만드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염색하고 가공하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상 작업할 때 천 소재는 린넨을 주로 써요. 착용감과 형태, 통기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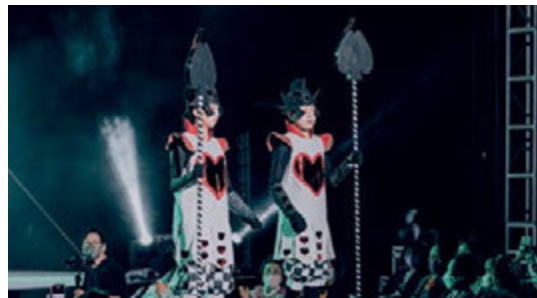
좋거든요. 구김도 덜하고요. 천연 소재다 보니 혼합 소재보다는 몸에 해도 적어요. 색상은 툰 다운한 그린 계열을 선호합니다. 자수로 보면 화려한 입체 자수보다는 평면 작업에 마음이 더 가는 편입니다.

작품 철학은

보이는 것보다 쓰임을 많이 생각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입기 좋은 옷이 보기도 좋다는 주의랄까. 의도한 대로 모양이 나올까 보다는 세탁하고 햇볕에 말렸을 때 어떻게 될지, 다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삶에 기댄 예술, 생활 속 예술을 지향합니다.

시련도 있었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작업이라는 게 취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가 뭘 안다고 학교 가서 사람들 가르치고 작업한다고 난리냐'는 뒷얘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런 게 싫어서 악착같이 전문자격증을 따고 더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해 관련 과를 정



2022 전주한지문화 축제 한지패션쇼



2023년 제12회 완주생문동 작품전시회 '전통 한지의 아름다움과 쓰임에 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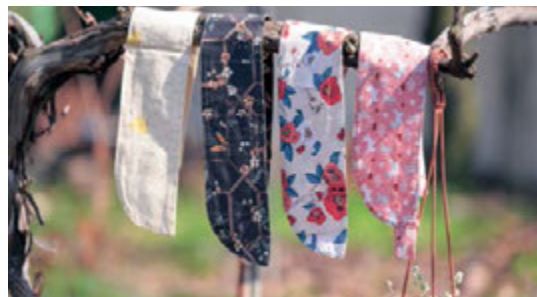
식으로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제 작품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한 셈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나

60세가 되기 전에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저의 색깔을 찾고 싶어요. 백남경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보러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것. 지금은 그 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앞으로의 계획

프랑스 자수, 패브릭, 손뜨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대형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어보려고요. 올해부터 천천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❶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햇살이 깊어지고 초록이 우거지는 6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이자!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여름맛이 되살림 장터▶

옷장과 서랍 속 잠자고 있는 물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되살림 장터가 진행된다. 이웃과 함께 마음도 주고받으며 다양한 물건들 중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보는 재미까지 방앗간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진행정보▶ 6월 14일 (토) 오후 2시~6시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퓨리', '하얼빈'을 함께 본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6월 18일, 25일 (매주 수) 오후 2시

▶저속노화밥상▶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준다.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6월 18일, 25일 (매주 수) 오후 6시

▶참가비▶ 5,000원

▶축구보는 짹짹이들 축구다큐▶

청춘방앗간에서 '화요 축구다큐'를 길잡이 삼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봄에는 축구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6월 17일, 24일 (매주 화) 오후 7시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6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 월, 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더위도 함께하는 6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6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6월 14일 (토) 오후 2시	과속스캔들	코미디	전체 관람가
6월 21일 (토) 오후 2시	아마무라 코지 애니메이션 단편선	애니메이션	12세 관람가
6월 28일 (토) 오후 2시	퓨리오사: 매드맥스사가	액션	15세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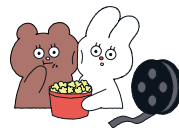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6월 24일 (화) 오후 7시	아침바다 갈매기는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

6월 14일 완주군청 일원에서 제60회 완주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을 기념하며 각계각층의 내빈과 함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완주군 어린이 취태대를 시작으로 60명의 완주군 생활문



화예술동호회 난타와 고고장구팀, 60명의 라인댄스팀이 활기찬 오프닝 공연을 열어 완주군 4개 합창단과 홍보대사 윤수연의 합동공연으로 6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되새기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군민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각각 수여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군민의 날은 완주군 인구 10만 달성을 기념하는 비전 선포식과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완주군 애향운동본부에서는 10만 번째 군민을 포함한 다동이 가족, 100세 어르신 등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1부 기념식과 2부 비전 선포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군민 모두가 화합하며 즐길 수 있는 민속경기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개그맨 조래훈의 사회로 군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군민노래자랑은 각 읍면을 대표하는 13팀의 군민들이 참가하며 완주군 홍보대사인 배아현을 비롯해, 지역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함께 진행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완주 근대역사 문화여행

완주군은 오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근대역사 문화여행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 행사를 연다. 행사에는 뮤지컬 영웅, 근대유산 해설버스, 양곡밀정 RPG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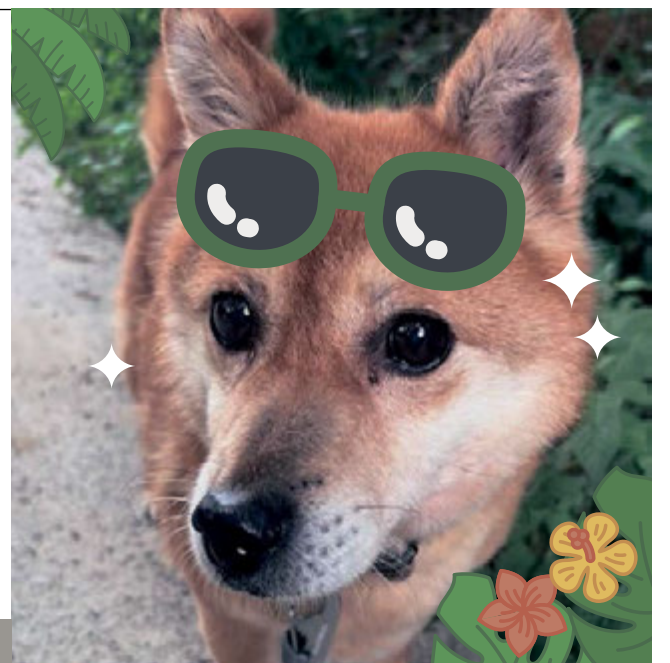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순심(♀)
짧은 다리를 가진 귀여운 눈심!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7~8kg
나이: 10살 이상 추정
건강상태: 중성화완료, 심장사상충 음성 (25년 4월 검진)
순심이는 길 위에서 7년, 보호소에서 3년. 작은 견사 안에서 봉사자들이 깔아주는 이불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산책을 오래 못 나가 발톱이 지라 혈관까지 길어져 매번 출혈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견뎌온 아이다. 이런 순심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키워드 - 일상을 닮은 예술

윤혜정 지음 | 을유문화사 | 384쪽 | 2022 | 1만8천원

인생, 예술

인생, 예술

‘인생, 예술’은 28명의 예술가와 예술가들에 의해 태어난 작품을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담은 에세이이다. 저자는 20년 넘게 예술 거장들의 삶과 철학을 전달해 온 에디터이다. 예술가의 삶과 철학을 먼저 들여다 보고 작품 설명이 이어지기에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또한, 저자의 삶과 연결된 글부터 평론하는 글까지 다채롭다. 한편 한편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정성껏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하루가 예술처럼 더욱 풍성할 것이다. 미술 관련 책의 좋은 점은 한 번에 읽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마음이 끌리는 소제목을 보고 한 편만 읽어도 된다는 점이다. ‘인생, 예술’ 역시 5개의(감정, 관계, 일, 여성, 일상)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한 챕터 안에 4~5명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있어 현재 마음이 끌리는 소제목을 찾아 읽는다면 부담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삶의 태도

이원율 지음 | 빅피시 | 300쪽 | 2025 | 1만9천8백원

마흔에 보는 그림



김선현 작가의 ‘그림의 힘’을 추천한 적이 있다. ‘그림의 힘’은 한 작품에서 느끼는 감정을 읽고 위로하는 반면 ‘마흔에 보는 그림’은 화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삶과 연결된 작품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을 읽고 내 삶을 좀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마흔에 보는 그림’은 1800년대 화가부터 현재 유명한 화가까지 소개되어 있다. ‘뱅크시’ 같은 최근의 화가를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또한, 여러 책에서 중복되는 유명한 화가들도 있지만 새로운 화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 좋다. 마흔에 읽으면 좋을 철학, 자기계발서 등 많은 책들 중 ‘마흔’과 ‘그림’이라는 흥미로운 조합에 이 책이 끌리기도 했다. ‘마흔’은 감정이 단선적이지 않고, 모순된 감정이 공존하는 시기로 혼란스러우면서도 단단해지고, 외로우면서도 자유로워지는 ‘마흔’은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을 통해 작가가 ‘마흔’을 ‘그림’으로 위로하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베르:봄 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1길 13

010-2074-5340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레

#72 맛있는 바다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혼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291-8448

봉동 그라스팜, 2025 농촌돌봄농장 신규농장으로 선정

봉동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이하 그라스팜)이 2025년 농촌돌봄농장으로 선정됐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인이 농업활동과 농촌자원을 활용해 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이다.

시골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서 완주로 무작정 귀농한 지 6년 차인 정시주·이현희 부부는 봉동읍에서 스윗바질, 로즈마리, 애플민트, 잉글리시라벤더 등 16종의 허브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농촌돌봄농업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이현희 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업의 가치를 깨달으며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지난해 11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한 농촌돌봄농장 시범사업에 대한 경험 덕분에 올해 신규농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그라스팜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성인 발달장애인과 노인복지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브를 활용한 농촌돌봄농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현희 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분과 만나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농장으로 자리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그라스팜은 ‘허브몽땅’이라는 브랜드로 신선한 허브 생잎과 모종 판매, 가공상품 개발, 아로마테라피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융복합 농장을 운영하며 허브의 다양한 가치를 선보이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라스팜

주소_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881-33
문의_ 010-5503-3721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최종우들 우당탕탕 원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소사의 목소리로 완성된 남방의 기도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8) 라미레즈의 [키리에]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이 짧은 기도는 수백 년간 미사곡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양 교회음악의 뿌리이자, 가장 인간적인 탄식의 언어. 하지만 때로 이 오래된 말은 고대 그리스도교의 울림을 넘어, 민중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리엘 라미레즈(Ariel Ramírez, 1921-2010)의 [미사 크리올라](Misa Criolla) 속 [키리에] (“Kyrie”)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곡은 전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처연한, 남미의 하늘과 땅이 묻어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가 부르면 음악을 넘어 하나의 생명력 있는 호흡이 되고 맙니다.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라미레즈는 민속음악을 서양의 형식 안에서 풀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음악가입니다. 그는 탱고나 클래식 세련됨보다도, 민중의 언어를 음악으로 되살리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미사 크리올라]는 바로 그런 실험의 결정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작곡된 이 미사곡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라틴어 대신 스페인어로 가사를 쓴 최초의 미사곡 중 하나입니다. 라미레즈는 유럽식 신앙을 남미 대륙의 색채로 환골탈태시켰습니다. 이 미사곡은 단순한 종교음악이 아니라, 억눌린 이들의 기도가 음악이 된 것입니다.

이 음악을 진짜 기도로 만든 목소리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 ‘라틴 아메리카의 목소리’로 불리는 그녀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부 독재에 맞선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저항과 연대, 평화를 노래한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의 슬픔과 투쟁, 사랑과 용서를 한 몸매 담고 노래했습니다.

소사의 목소리는 풍성하고도 깊습니다. 그것은 안데스산맥의 메아리 같기도 하고, 엄마가 들려주는 자장가 같기도 합니다. [미사 크리올라]의 [키리에]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무릎 꿇은 민중의 울음이자,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의 호소입니다.

‘Kyrie eleison’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그리스어 기원의 기도문입니다. 미사에서는 보통 세 번 반복되며, 이는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대체로 이 구절은 엄숙하고 장중한 합창으로 표현되며, 신의 위엄 앞에 선 인간의 미약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라미레즈와 소사는 이 기도를 울부짖음이 아닌 포옹의 노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대신 기타와 작은 북이 반주를 맡고,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리듬이 피어오르며, 낮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기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소사는 이 곡을 슬픔의 웅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듯이 부릅니다. 고요하면서도 생생하게! 절제되었지만 한없이 깊습니다. 전통적인

[키리에]가 수도원이나 성당의 울림이라면, 소사의 [키리에] 민중의 광장, 흠과 땀, 눈물과 햇살의 자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 종종 위엄 있는 음악을 통해 나를 추슬러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라미레즈와 소사의 [키리에]는 거꾸로 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흐트러진 채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당신이 무너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이 음악은 어깨를 짚 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줍니다. 무릎 꿇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무릎 꿇은 이 곁에 함께 앉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키리에]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위로요, 회복을 위한 고백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요와 흔들림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울음과 침묵이 어우러진 그 소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스승이요 아버지처럼 모시고 따랐던 서정인, 정양 두 분 선생님을 홀연 떠나보내고 그 허한 마음 달래기 위해 요즘 자주 귀 기울이는 곡입니다.

소사의 [키리에]를 듣고 있는 동안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을 잠시 잊게 됩니다. 이 기도의 노래는 “주여, 자비를”이라는 말보다 먼저, 우리들 마음에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지나치게 애달파 하지는 마시라. 남산 바라보는 유연한 마음으로(悠然見南山) 그저 사랑하고 즐기시라. 지금 이 순간을!”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완주생활문화 수강생들 배운 솜씨 뽐낸다 21일 합동공연

완주문화회집·삼례생활문화센터, 구이생활문화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완주군이 후원하는 수강생 합동공연 ‘THE 함성’이 오는 6월 21일 열린다. 공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리며 각 센터 수강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 춤, 악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생활문화 강좌를 통해 예술을 배우고 즐거운 주민들이 공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여름의 문턱에서 열리는 무대인 만큼 지역민의 큰 함성과 응원을 기대한다”며 “바쁜 일정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집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택한 여성의 여정

김영혜의 **영화산책**
(5) 노매드랜드 Nomadland

만약 내가 어느 날 문득,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서게 된다면? 그래서 줄지에 홈리스(homeless)가 된다면? 어둡고 추운 밤거리에 웃가지 몇 벌과 세간살이 몇 점만 지닌 채 갈 곳도 없이 서 있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상이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슬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노인들의 상황을 그린 영화가 있다. <노매드랜드>이다. 동명의 다큐멘터리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비록 극영화이긴 하지만 다큐멘터리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주연배우 외에는 모두 실제 인물들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적으로, 혹은 저임금 때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한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에 집을 빼앗기게 된다. 이들 중 어떤 이는 친지의 집에 더부살이하고 어떤 이는 홈리스가 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노매드랜드>의 주인공들처럼 자동차에 세간살이를 싣고 정처 없는 길 위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길 위의 삶은 위협하다. 한곳에 오래 차를 주차해 둘 수 없으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마트 주차장이나 비교적 안전해 보



클로이 자오 감독, 프랜시스 맥도먼드 주연, 미국, 2020

이는 공터에 주차하고 밤을 지낸다. 그러다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거나 불량배에게 위협을 받거나 하면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런 삶은 나이 든 여성에게는 특히나 위협적이다.

“어떻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예순네 살 여성이 결국 가진 집도, 영구적으로 머무를 장소도 없는 처지에 놓이고, 살아남기 위해 앞날을 알 수 없는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게 되는지를. 해발 2킬로미터에 이르는 높다란 삼림지대에서, 오락가락하는 눈과 함께, 또 어쩌면 퓨마들과도 함께, 소형 트레일러에 살면서, 번덕을 부려 근무시간을 삭감하거나 심지어 그를 해고해버릴지도 모르는 고용주들의 뜻대로 화장실을 문질러 닦으며 살게 되는지를. 그런 사람에게 미래란 어떤 그림일까?”(원작, 55쪽)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국은 애당초 자동차 안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지형이니 우리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 한낮의 땀방 아래에서, 얼어붙은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 폐지가 가득 없힌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한국의 노인들은 그래도 머리 누일 곳이 있으니 미국의 노마드족 보다는 좀 낫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지쳐서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헤엄쳐야만 생존할 수 있는 미국사회(“Swim or Sink”)가 직면한 비극을 이처럼 생생하게 그리는 영화도 드물 것이다. 주연을 맡은 배우 프랜시스 맥도먼드(Frances McDormand)의 존재는 이 암울하고 쓸쓸한 영화를 끝까지 지켜보게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만일 이 배우를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보았다면 그녀를 전문 배우로 보지 않고 다른 출연자들처럼 실제 홈리스 노인으로 생각할법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는 탁월하고 자연스럽다.

원작인 동명의 다큐멘터리 소설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왔다. 일독을 권한다.
(노매드랜드(Nomadland), 제시카 브루더 지음, 서제인 옮김, 엘리, 2021)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 소식

완주군, 전국 최초 문화선도산단 ‘W260+’ 본격 출범

‘완주 문화선도산단 W260+’ 발대식이 지난 9일 완주 산단 입주기업, 지역 주민, 청년,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완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관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데 이어 총 885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 브랜드 및 랜드마크 구축, 시설·인프라 확충, 문화콘텐츠 지원을 통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업단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합동 공모사업이다.

발대식에서 공개된 ‘W260+’ 브랜드는 매달 평균 260명씩 증가하는 완주군 인구 증가세에서 착안한 전략 브랜드로, ‘문화가 머무르고, 청년이 찾아오며, 산업이 사람을 품는 도시’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완주군은 앞서 5월 29일 서울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열린 2025년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출범식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농업, 자동차, 수소 등 완주산단의 주력사업을 기반으로 자동차·수소산업 복합문화공간(랜드마크) 조성, 영상제작·3D모델링 교육공간 구축, 야외공연장 및 조경쉼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소통 거점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음



식축제, 공예·음악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이 몰려오는 활력 넘치는 산단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지역청년,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컬처링(culture-ring) 등 다양한 문화융합 거버넌스를 구성해 민·관·산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못자리에서 논배미로!

농/촌/별/곡



차 남 호

어둠이 깃든 초여름 밤, 시골 마을은 꽤 시끄러운 편이다. 울음인지, 노래인지 개구리 떼창으로 요동친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 입체음향은 그저 소란스럽지만은 않은 울림이 있다. 그 사이를 뚫고 경경 울리는 동네 개 짖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아련한 향수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굴뚝에 밥 짓는 연기 피어오르는 풍경, 노는 데 뉘이 나간 아이들 부르는 엄마 목소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리고 끊일 듯 이어지는 애절한 소쩍새 울음.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간다.

저 멀리 그리고 가까이 산허리는 콩고물을 뿌려놓은 듯 부연 밤꽃으로 뭉개졌다. 그리고 보니 유월로 접어들었다. 상추는 꽃대를 올리고, 보리가 익어가는 무렵. 이제 이 고장은 이모작 양파와 마늘

캐 때로 이 시절을 떠올린다. 하지만 유월은 뉘니 뉘니 해도 모내기다.

안 그래도 지난 주말 여럿이 함께 동네 모를 심었다. 고산향교육공동체가 마련한 <풍년기원 단오 한마당>의 '꽃'이라 할 손모내기. 고산의 두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백여 명이 참여했고, 이번에도 고산권벼농사두레가 행사를 이끌었다. 못줄 뒤로 늘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처음엔 꼼지락꼼지락 굵뜨던 아이들도 열 줄 남짓 심다 보면 이력이 붙게 돼 있다. 맨발바닥에 닿는 진창의 미끈한 느낌이 낯설기도 하고, 더러 다리가 꼬여 발라당 넘어지기도 하지만 한 시간 남짓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모두가 뿌듯한 표정이다.

이건 그 옛날, 동네마다 모내기 두레를 짜서 이른 아침부터 저물녘까지 보름 남짓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의 손모내기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체험'일 뿐 현실이 아닌 게다. 이 시대의 실화는 이양기 한 대가 그 술한 일손을 대신하는 기계 모내기다. 그 모내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십 년 넘게 벼농사 이력이 쌓였거늘 막상 모내기를 앞두고도 심신이 천근만근 무겁다. 어차피 해야 할 일 미룰 대로 미루다가 코앞에 닥치고야 몸을 움직이니 참으로 병통이 아닐 수 없다. 논둑에 우거진 풀을 애저녁에 쳐주었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어

제서야 예초기를 점검하고 시운전을 했다.

이력이 문제가 아니라 심성의 문제일까. 어쩐 일인지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래저래 상황이 여의치않아 올해는 특히 어렵겠거니 해두자.

어쨌거나 지금은 모내기를 위해 논배미를 삶아야 하는 시간. 한가득 물을 가둬 흙을 바수고 씨레질을 하는 일이다. 물론 트랙터라는 기계로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비가 내린 지 오랜 터라 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논배미가 더러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찌어찌해서라도 물을 가둬 모낼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는 저수지 둑이 터져 물이 바다난 상태에서도 결국 모내기를 하지 않았던가.

사실 소규모 벼농사라는 게 농가경제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유기농 벼농사를 고집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건강한 먹거리, 식량주권, 생태보전... 그 답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렇다면 하는 짓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아가 시간이 흘러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기운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달포 전에 모판을 얹힌 못자리에는 벼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번 주말 벼농사두레는 다시 모인다. 못자리에서 논배미로! 모내기할 모판을 나르기 위해.

비봉 염따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인구 10만 달성은 군민이 만든 송고한 기록”

완주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완주군의회가 지난 9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5월 27일 완주군이 인구 10만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는 완주군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희망이 만들어낸 송고한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주라는 이름은 더 이상

주변이나 배후가 아니라 자립하고 주도하며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유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주민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경고하며, 이로 인한 지역갈등과 화합 저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장에게도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완주군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군민 주권과 자치를 지키며 ‘주민자치 1번지 완주’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 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이제는 **10**만 완주시대

인구 10만 달성 축하합니다!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로
비상(飛上)!

15만 인구 달성
도시성장 가속화
(인구)

전국 군단위 GRDP 1위
경제성장 고도화
(경제)

행복지수 1위 도시
행복성장 지속화
(삶의 질)

주민자치 1번지
읍면성장 특성화
(균형발전)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완주미디어센터